

시방서의 역할

The Role of Specification Drawings

김종복 / (주)대영사그룹건축사사무소
by Kim Jong-Bok

우리의 건설은 수천년간의 고유한 전통건축에서부터 시작하여, 1900년경을 기점으로 소위 근대건축 이후에 서양건축을 건설하기 시작, 1945년 해방이후 미국식 건설방법을 배웠다. 이 시점부터 도면과 시방서에 의해 시공해야 하는 당위성과 중요성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63년 이후 월남전을 통하여 한국의 파병과 동시에 건설이 뒤따랐으며, 건설을 통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시작하여 1970년 이후 오일파동(Oil Crisis)때는 중동산유국의 건설 호황으로 우리 건설회사가 진출했고 그 결과 많은 외화를 벌어들임으로써 한국경제에 기여한 바도 컸다.

1980년 이후 한국건설은 소위 아파트 건설시대를 맞아 세계지구촌 각지에서 건설자재와 기기를 품질에 상관없이 마구 사들여야 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경제는 더없는 호황을 구가하면서 온 나라가 부정부패로 만연하던 차에 우리 건설분야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엄청난 사건을 치르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이것도 미국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건설제도의 부실 즉 감리제도와 시방서의 부실이였다. 그렇게 많은 해외공사를 수행하면서 우리 정부와 건설인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눈을 감고 지나갔다. 편한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돈 벌기 쉬운 방법으로 처리한 결과는 국민의 큰 희생이었다. 이에 따른 정부 처벌은 감리제도로 사고를 예방하여 왔으며 현재까지도 시행하고 있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우리 건축사들이 부정부패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서 우리의 처우가 땅에 떨어지고 설계비의 덩핑으로 영세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더 마음 아픈 사실은 건설회사에서 설계권까지 가져가게 된 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매우 걱정된다.

1997년 W.T.O에 가입하게 되었고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한국의 경제상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외화 1천 500억달러(한화 약 160조원)를 상회하는 국가경제의 파국이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시점에 대한민국은 IMF관리체제하에 돌입하였고 온 국민은 고통과 시련으로 1년을 보내면서 실업자 2백만을 상회하는 1999년 5월을 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 건축사와 설계에 종사하는 설계인들은 어떤 업종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80%의 건축사가 휴업 중에 있다.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빅딜(Big-dill), 작은 정부 실패, 무역수출액 감소,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어음제도의 점진적 폐지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건설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택건설을 활성화시키려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 건축사의 체감에는 느낌이 오지않는 것이 실상이다. 이 어려운 시점을 이용하여 우리 건축사는 재도전의 기회를 만들어 우리의 기초를 구축한다는 각오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우리 영역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으며, 더욱이 부과세 과세 대상이 되었고, 협회의 다원화까지 만들어 우리는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 우리가 단결하지 않으면 존재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여러 개의 협회는 몇 사람의 감투욕은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금번 임시총회에서 기결한 공제규정제정안의 결정은 우리 건축사를 보호하고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받을 일이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시방서에 주요장비와 자재지정도 건축사의 생존권에 속하는 우리의 고유한 권한으로 우리의 입지를 우리 사회에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 정부의 건설정책도 국제화, 개방화 정책에 따라 준비 중에 있으며 기 언급한 시방서 또한 새로운 내용의 시방서를 준비해야 한다. 그간 우리 건축 시방서는 유명 무실한 시방서였다. 정부에서 시행할 의사가 없었다. 쉬운 방법으로, 편한 방법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국제입찰을 위해서도 FIDIC라는 국제입찰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며, 모든 Claim이 시방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제 국제입찰에 부쳐지는 공사는 법의 심판까지도 받아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국제시대가 온 것이다. 정부의 방어 대책이 요구되며, 시방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준비할 시점이다. 과거와 같은 불분명하고 무책임한 시방서가 아니라 주요장비와 주요자재가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유럽국가나 미국은 자국의 장비와 주요자재의 판매전략을 위해서도 시방서에 주요장비와 주요자재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은 우리가 해외공사에서 20~30년 전부터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며, 우리 국산품을 장려하기 위해서도 제품의 명시가 꼭 필요하며 강력한 경쟁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 건교부에서도 시방서를 정리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시방서 작성 업무가 우리 건축사 업무 중 중요한 고유 업무로서 주요 장비와 자재를 우리가 지정해야 하며, 우리 디자인(Design)에 알맞은 자재와 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 건축사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건축사가 되어야 하고 건축사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이다.